

A silhouette of a cross on a rock against a sunset sky. The cross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rock, and the sky is filled with warm, golden light from the setting sun.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ock and sky.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레위기 16:1-22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다음은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3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홉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5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6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7 또한 그는 숫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 놓고,

8 그 숫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9 아론은 주의 뭇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들여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10 아사셀의 뭇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 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1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2 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 있는 솥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3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14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5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16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 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7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18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19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20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
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
음에 아론은 살려 둔 숫염소를 끌고 와서,

레위기 16:1-22

새번역 성경



21 살아 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22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설교

“속죄의 은혜”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어렵고, 필요없다??



Iniquity: 언약을 위배

Sins: 일반적인 죄

Uncleanness: 거룩하지 못함

1. 염소는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간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짐어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53:4)

נשא

→ 짐어지다. Carry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29).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53:6).

2.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가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 숫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레위기 16:8).

3. 떠나간 영소는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시편 103:12).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아 31:34).

속죄의 3가지 은혜

1. 실체가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죄를 대신 짊어지심.
2. 죄의 떠나감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여주심.
3. 사함받은 죄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